

기 도 ----- 인 도 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의 영생복락을 소망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2025년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배마침 -----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가정의 설날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동산교회
홍순용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예배초대 ----- 가족 중에서 ----- 다 같 이

묵상기도 ----- 다 같 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 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 가족 중에서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 가정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요한1서 3:1-3 (신약 p.390)** ----- 인 도 자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나눔 ----- 「받은 복에 감사하는 설날」 ----- 인 도 자

설날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많이 받아야 하고, 혹은 어떤 복을 이미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이러한 축복을 함께 소망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1)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 질문의 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아는 것, 곧 복음을 아는 것을 통해 자녀가 되어 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부활의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2)

2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장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절이 현재를 강조했다면 2절은 우리의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비록 지금의 육신은 썩어져 가지만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아프지 않고 고통 없는 등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한 미래”**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깨끗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작년보다 올해 더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